2005년 농림부 축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농림부, 연두업무보고 주요내용)

□ 산지 유통조직 육성

규모화된 지역단위 축산브랜드경영체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이상 농가 조직화, 품질 · 위생관리 브랜드 규약 제정 등 일정기준을 갖춘 경영체(30개소 내외)를 선발, 집중 지원한다. 또한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10월)를 개최하여 우수브랜드 평가 등 우수농축산물브랜드를 홍보강화 한다.

산지 축산물 생산 · 유통지원 자금(932억원),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3백억원), 포장재비 등을 지원하며,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한 경영지침서를 발간 보급(4월)하고 자체진단 프로그램을 개발(5월)한다.

LPC(축산물종합처리장)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제 실시 및 운영자금을 차등지원(상위권 금리 0%, 중위권 3%, 하위권은 지원에서 배제)한다.

□ 자조금 제도 활성화

축산 의무자조금 조성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의무 자조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축종 특성에 따라 대의원 수 조정 및 수납기관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원활한 자조금 조성을 도모 토록하고 금년 중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 추진한다. 의무자조금 조성에 따라 자조 활동분야를 소비 홍보 위주에서 품질관리, 사전 · 사후적 수급안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현재 축산의무자조금은 양돈뿐이나 한우품목을 추가조성 한다.

□ 축산물 안전성 관리

사육단계에서 농가의 위생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HACCP) 기준을 제정시행하고, 동물약품 안전사용기준, 출하전 휴약기간 등을 준수하도록 순회교육(2회)을 실시하고, 항생제 등 초과검출시 제재를 강화한다.

올해말까지 돼지 사육단계에 적용할 HACCP 지침을 개발, 2006년 양돈부터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다른 축종까지 확대한다.

도축 · 가공단계에서 미생물과 잔류물질 등 검사를 강화(검사물량 확대, 잔류물질 및 미생물 범위확대, 도축검사원 충원 등)하고, HACCP 운용 수준을 평가, 운영자금(578억원)을 차등지원(우수 도축장은 무이자, 중위권은 3%, 하위권은 제외)하는 한편 닭 ·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2007년)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부위별 정형기준 등을 마련한다.

유통단계에 적용할 안전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시범사업을 2월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판매업 등에 HACCP적용을 위한 지침제정(05. 6),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식육판매업소를 신규 개설할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한다.

□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 확산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오는 2013년까지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1천헥타 규모의 친환경 농업단지 50개소를 조성한다.

무항생제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 시설 설치 · 개보수사업 지원조건을 현행 보조 30%를 50%로 확대(284억원)하고, 퇴 · 액비 품질향상을 위해 가축분뇨 전처리시설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악취저감 등 가축분뇨 비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환경부와 공동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제정 추진한다.

이 법률안에는 양분총량제, 가축분뇨 퇴 · 액비 관리 지준 등을 담게 되고, 지역별 양분총량 등의 조사 · 연구를 위해 농림부 · 농진청 · 생산자단체 · 전문가 등으로 축산환경 모니터링 T/F를 구성 · 운영한다.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는 오는 2007년 시행을 목표로 금년중 세부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정착 및 가축 밀집사육지역 농가 이전을 유도한다. 가축 밀집사육 지역 내의 농가가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환경친화적인 축사신축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닭, 돼지, 젖소에 한해 6개소를 추진한다.

□ 가축방역 체계 강화

해외악성 가축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만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 및 지자체의 자율적 소독, 예찰 등 방역 활동 및 책임을 강화한다.

공동방제단(3천8백80개)을 통해 고령 농가 등 취약 농장에 대한 소독을 지원하고, 시도별 방역활동 추진 실적 등을 평가, 정책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인체 감염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 중심,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공익수의사제를 도입(올 상반기 병역법 등 개정)하고, 2006년에 현장 배치를 추진한다.

효율적인 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축산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3월 현재까지 대상 축산농가 3만9천호의 41%인 1만6천호가 등록하였고 금년말까지 일정규모이상 축산농가 등록 완료를 추가한다.

□ DDA 농업협상 대응

현재 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기술적 쟁점논의중이며 오는 7월경 세부원칙 초안이 제시될 예정이며, 12월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타결 시도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관심사항인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 최소화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에 근거한 협상을 추진한다.

□ FTA 협상 대응

금년에는 20여개국과 협상예정에 있으며 농민단체 등과 협상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체계적인 FTA농업협상 대응체제 구축 민감품목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 면밀한 협상전략을 수립한다.

동시다발적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부내 FTA 협상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협상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한다.